

오대산의 얼골 인허스님

소박한 성품...경전 통째 암기

사람이 한 30년 쯤 한 곳에 살면, 지나는 구름이나 바람과도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꺼풀의 꾸밈도 없는 인허 스님을 뵈면서 '자연스러움'의 미덕을 배웁니다.

경전을 보시면 한 권을 통째로 외워버리신다는 인허 스님. 고지식함과 꾸밈없음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인 모양입니다. 아직 부처님의 지음(知音)이 되지 못했다며 스스로를 낮추시는 스님.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1916년에 나서서 36년 상원사로 입산. 한암 스님의 문하에서 정진하셨고 현재는 월정사의 회주로 계십니다.

새롭게 단장한 도량을 둘러보노라니 '자비 도량'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날말이 떠오릅니다. '전쟁'입니다. 특히 월정사는 6·25전쟁의 불길에 잿더미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듯 전쟁은 인명만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문화 유산'에 대한 '분서경유(焚書坑儒)'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흔히 '불성'이라고 말하는 본래의 마음자리가 세상의 어떤 불로도 태울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성인이 세상에 나오시는 뜻이 이것으로써 분명해집니다. '겁화(劫火)의 진화(鎮火)'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월정사의 이런 모습도 탄허 스님이나 만화 스님과 같은 분들의 증언 원력이 끝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양보다 그 정신을 응원해 받들 일입니다.

월정사는 어디에 견주어도 아랫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두 가지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대산이라는 물리적 배경이 그 하나요, 개산조(開山祖)인 자장 스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적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은 분리 불가능한 둘입니다. 하나된 그 둘의 이름은 '문수보살'입니다. 오대산은 1만 문수보살이 항상 머무시는 도량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간단히 그 내력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장 스님은 신라 선덕여왕 때인 당나라 태종 정관 10년(636)에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려고 중국 오대산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문수보살의 석상 앞에서 이레 동안 기도를 하니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네 구질의 계승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어로 된 것이어서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어 수심에 잠겨 있는데, 한 승려가 나타나서 뜻을 새겨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가사 한 벌과 부처님의 바투와 머리뼈 한 조각을 주면서 "그대 나라의 동북방 명주(지금의 강릉) 경계에 오대산이 있는데 1만의 문수보살이 언제나 그곳에 머물고 있으니 가서 보십시오"하고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스님은 용의 칭의 받아들여 이레 동안 공양을 올리니 용이 나타나 "어제 계승을 전하던 노승이 바로 진짜 문수보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문수보살 상주도량 깨달음의 달 등실



오대산 월정사

아직 붉은 저 남쪽 마을에서 락청을 부리고 있나 봅니다. 오대산 자락에는 아직 드문드문 눈이 남아 있습니다. 오대천 가장자리에도 얼음장이 괜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반짝이는 건 분명 '불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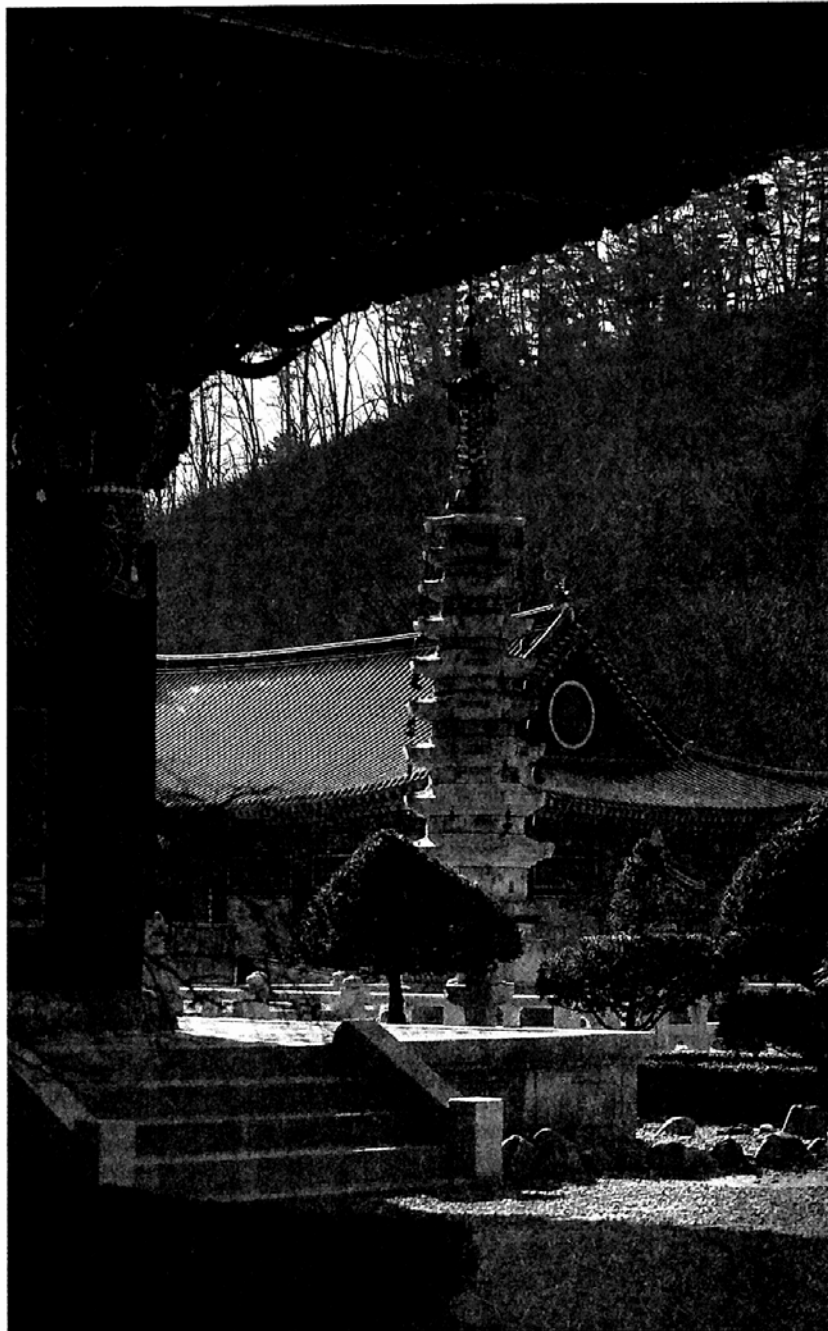
오대산의 수호 신장인 전나무 숲길에도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세한(歲寒)의 강건미를 보여주던 질푸른 기운도 연록빛 봄의 미스를 띄고 있습니다.

곶속으로 고이는 오대천 시린 물로 마음 한 귀퉁이 행구고, 금강교를 건넌다. 질척거리는 길바닥이 발바닥을 간지럽힙니다. 싫지 않습니다. 몇 발짝 옮기니 월정사가 코앞입니다.

새로 지은 금강루가 조금 생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옛것 또한 한때의 새것이고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겠지요. '옛 길'에 새 걸음'입니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과 전각들의 조화가. 영원으로 이어질 여제와 오늘의 모습을 보여준다.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한국 다층석탑의 전형을 보여주는 팔각구층탑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37과를 봉안하고 있다.



"佛法 길이 번창할곳" ...사자암 등 五臺 여래·보살들의 主處

삼국유사에 전하는 얘기로 개산(開山)의 내력이기도 합니다. 한편 월정사의 창건에 대해서 삼국유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의(信義)는 범일대사의 문인이었는데, 이 산을 찾아와서 자장법사가 머물렀던 곳을 찾아 암자를 짓고 살았다. 신의가 죽은 후로는 암자 또한 홀어 있더니, 수다사의 장로 유연(有緣)이 암자를 다시 짓고 살았는데, 지금의 월정사가 바로 그곳이다."

또 이 책은 "나라 안의 명산 중에서도 이곳이 가장 좋은 땅이므로 이 곳은 불법(佛法)이 길이 번창할 곳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불법과의 인연이 참으로 깊다 하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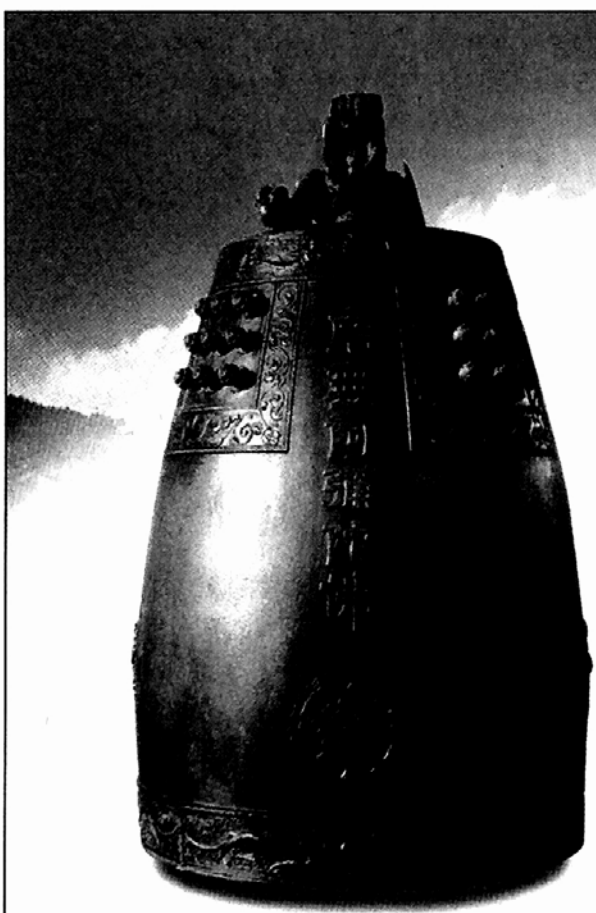
있습니다. 남대 지장암은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건너 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지장보살이 상주한다는 도량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입니다. 끝으로 북대 미륵암은 상왕봉 중턱에 가부좌를 틀고 있습니다. 석가여래의 주처로 가까이에 나옹 스님이 수행한 곳이라는 나옹대가 있습니다. 오대산과 월정사를 말하면서 적멸보궁을 빠뜨릴 수는 없겠지요.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로 자장 스님이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오대천을 거슬러 올라 상원사를 거쳐 비로봉의 동쪽 기슭으로 오르면 됩니다. 내려오는 길에

는 상원사에 들러 세조가 직접 보았다는 문수동자 좌상(국보 36호)을 뵈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월정사의 주요 문화재로는 적광전 앞의 팔각구층석탑(국보 48호), 석조보살좌상(보물 139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문화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6·25때 한암(1876-1951) 스님께서 국군들이 상원사 법당을 태우려 하자 소신(燒身)의 자세로 맞서 지켜낸 것과 같은 불법 수호의 정신일 것입니다.

오대산 비로봉 위로 천년 세월을 뜨고 진 깨달음의 달, 자장·신의·나옹·사명 한암·탄허·만화... 그 환한 달빛을 밝으며 산문을 나섭니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중량 3,300관

가야산 범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 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